

# 상반기 경력직 채용, 신입 '5배'

산업구조·직무중심 채용 변화  
신입보다 경력 '수시채용' 확산  
IT·제조·화학 등이 경력 비중 ↑

유래없는 청년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구조와 직무중심 채용 문화로의 변화에 따라 수시채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경력직 채용이 신입 채용의 5배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인구직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조사한 상반기 채용 공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화학' 분야가 전체 공고의 24.4%를 차지해 채용이 가장 많았던 업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24.6%)와 비슷한 비율로, 상반기 제조업이 주축했지만, 반도체·정유·화학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채용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화학에 이어 '서비스업'(14.7%), 'IT·웹·통신'(13%), '건설업'(10.6%), '판매·유통'(9.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IT·웹·통신' 업종의 채용이 지난해 동기 대비 2.8%p 증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



지난 7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중앙정원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클럽핑 페스티벌 형식의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홈플러스

하고 있었다. 반대로 '판매·유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올 해 상반기 채용공고는 5.2%p 감소했다.

수시채용과 직무 중심 인재를 발탁하는 기업이 늘면서 경력 채용 선호 현상은 더욱 강세였다. 상반기 경력직 채용하는 공고는 전체의 34%로, 이는 신입만 채용한 공고(6.3%)에 비해 5.4배 높은 수치다.

그렇다면 경력 공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무엇일까.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필두로 새

로운 기술 인재 채용이 활발한 'IT·웹·통신'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화학'(41.2%), '기관/협회'(38.7%), '건설업'(35.2%), '미디어·디자인'(34%), '의료·제약·복지'(29.2%), '판매·유통'(25.9%) 등이었다.

신입 채용공고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디어·디자인'(7.8%)과 '건설업'(7.8%)이었으며, 다음으로 '기관/협회'(7.7%), '판매/유통'(7.4%), '제조/화학'(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국민대 'CoREP' 취업률 92.5% 기록 실무역량 극대화에 기업들도 '주목'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 경력개발지원단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CoREP(핵심직무 전문가 양성과정)'이 학생과 기업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취업 준비를 넘어 원하는 기업 입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민대에 따르면, CoREP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직무를 막론하고 '직무 공모전'에 전부 참여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접촉해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아 현재 재직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해 여름 국민대 CoREP의 유통 영업 팀은 남성복 셔츠 제조·수출업체인 덕양무역의 'Non-Iron 셔츠 내수시장 신규진출'이라는 주제로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제안서는 창의적이면서도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이 팀의 조장인 교육학과 김동혁 학생은 덕양무역 국내영업 담당 신입사원으로 지난 2월 입사했다.

9월부터 진행되는 기업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국민대 CoREP은 기업들로부터

도 주목을 받는다. 기업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가 필요한 때문이다. CoREP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성 및 비즈니스마인드 등 직장인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교육과 마케팅·기획안 작성·기초회계 등 공통 직무역량 교육을 진행한 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하는 100% '실무중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모전에서 제안할 사업 주제 선정부터 그에 따른 기업과 시장환경 분석, 사업기획, 보고서 작성, 발표까지 모든 과정은 100% 학생들이 계획하고 운영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현업 전문가인 멘토들이 배치되어 피드백·중간평가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결과로 2016년에는 CoREP 프로그램에 참여한 80명 중 74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92.5%의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동혁 씨는 "이번 판매를 통한 셔츠 기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 학생들이 교내 경력개발지원단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CoREP(핵심직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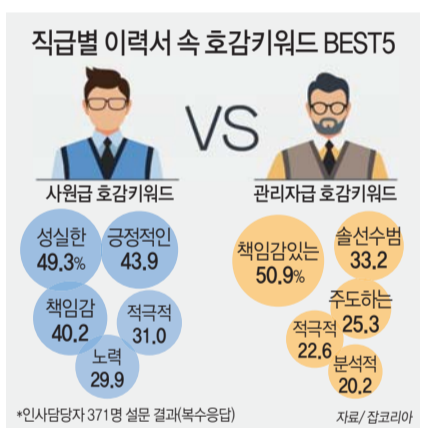
# 이력서 호감 키워드 사원은 '성실' 관리자는 '책임감'

2위는 '긍정적·솔선수범' 꼽혀  
채용서 중요한 항목은 '직무경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직급별로 더 호감을 느끼는 키워드는 따로 있었다. 사원급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성실한'에, 관리자급을 채용할 때는 '책임감 있는'에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8일 최근 인사담당자 371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내 호감키워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사원급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지원서에서 더 호감이 가는 키워드(복수응답)를 꼽게 한 결과 ▲성실한이 총 49.3%의 응답률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긍정적인(43.9%)이, 3위는



▲책임감 있는(40.2%)이 각각 차지했다. 이어 ▲적극적인(31.0%), ▲노력하는(29.9%), ▲꾸준한(15.9%), ▲솔선수범하는(14.8%), ▲신속한(10.8%) 등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호감을 갖게 하는 키워드로 꼽혔다.

관리자급 이력서에서 가장 호감을 느끼는 키워드로는 ▲책임감 있는(50.9%)을 1위로 꼽았다. 2위는 ▲솔선수범하는(33.2%)이 차지한 가운데 ▲주도하는(25.3%), ▲적극적인(22.6%)도 중요 키워드로 꼽혔다.

이밖에 ▲분석적인(20.2%) ▲성실한(19.7%) ▲긍정적인(19.1%) ▲배려하는(15.1%) ▲신중함(11.3%) ▲노력하는(11.1%) ▲창의적인(11.1%) 등도 관리급 지원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키워드로 꼽혔다.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지원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항목(복수응답)은 사원급과 관리자급 모두 '직무경험'이었다. 다만 '직무경험을 가장 우선해서 본다'는 응답은 관리자급에서 60.1%로 사원급의 53.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 시원스쿨 '왕초보 여행 베트남어' 도서 출간

시원스쿨은 최근 베트남 여행자가 증가에 따라 시원스쿨 베트남어 인강 전문 브랜드(시원스쿨 베트남어)가 '시원스쿨 왕초보 여행 베트남어' 도서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 하노이 등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900만 명으로 이 중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56.1% 증가한 200만 명을 기록했다.

책은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행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문장을 알려준다. 특히 사전에 찾듯 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가나다 순과 상황별로 제시해 원하는 베트남어를 빠르게 찾도록 한 구성이 특징이다. 원어인 MP3파일과 핵심표현만 담은



베트남어 표현 미니북도 함께 제공된다. 책을 기획한 시원스쿨 베트남어 담당자는 "베트남 여행지 정보는 물론 현지에서 간단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용 문장을 대거 수록했다"며 "베트남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 천재교육

# AI 수학브랜드 '닥터매스' 티저홈피 오픈

천재교육(회장 최정민) 계열사 해법에듀(대표이사 홍인국)는 지난 1일 인공지능 기반 신규 수학 브랜드 '닥터매스(Dr.Math)' 티저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닥터매스는 천재교육과 해법에듀의 방대한 교육 빅데이터와 국내 에듀테크 기업 클래스큐브의 문제은행 검색엔진이 만난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플랫폼으로, 학생별 취약점 분석 및 학습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문제은행에서 유사 문항 검색 지원하는 문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학습 커리큘럼을 효율적으로 제작·관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식·텍스트 등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도 도입됐다. 교사 중심의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제작된 고도화 지식맵을 활용, 학원·교습소·공부방 등 현장 교사에게 학생 별 취약점에 대한 분석 솔루션 및 맞춤 문제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법에듀는 오는 9월 닥터매스 정식 론칭에 앞서 오는 16일~31일까지 서비스를 가오픈하고 무료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1개월 무료체험 사전 예약을 신청한 선착순 300명에게 닥터매스 학원용 구급함을 선물로 준다.

/한용수 기자

## 서울시교육청-한국공항공사

# '열린 놀이터' 만들기 맞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일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한국공항공사(김명운 사장직무대행)와 '열린 놀이공간(통합놀이터)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항 인근 지역 학교에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을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설계하기 위해 어린이와 학부모, 교원, 연구진, 디자이너 등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함께하는 참여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놀이에 대한 어린이들의 욕구 파악을 위해 놀이관찰과 심층 인터뷰 등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 경희사이버대

# 예비지원자 캠퍼스 설명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예비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캠퍼스 생활설명회'를 11일 오후 3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지하 1층 B117호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예를 앞두고 있는 신·편입생 지원자, 예비지원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및 진학, 학사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학과(전공) 교수 소개를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 및 학사관리', '장학금 등 경희가족 혜택' 등이 안내되고, 학과별 예비 지원자들이 담당 교수와의 상담과 학과별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특히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인 글로벌 스튜디오 체험도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t.ly/2Og6EzF>)와 전화로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